



CBMC 미주한인 CBMC 월간 뉴스레터 NEWSLETTER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당신을
'일터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감사의 계절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깨닫게 하는 성경 구절



지난 24일은 추수감사절을 이었다. 요즘에는 이 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칠면조 요리를 즐기고 가족 상봉의 시간을 가진다. 하지만 원래 추수감사절은 순례자들 교부들이 추수의 축복과 전년도에 대한 감사를 드리던 날로 시작되었다. 1941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11월 넷째 주 일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했다.

사실, '감사'는 성경적 원칙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현해 왔다.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를 상기시키는 성경구절 10가지다.

1.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2.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시107:1)
3.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엡5:20)
4. 골로새서 3장 16-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3:16-17)
5.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6.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4:2)
7. 시편 95편 2-3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시95:2-3)
8.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100:4)
9. 고린도전서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전9:11)
10. 시편 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시9:1)

지난 잘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법) 167회 방송에 김학철 교수의 백만 송이 장미를 좋아하는 이유를 듣고 그 노래의 가사를 음미하여 보았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워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홀연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인네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 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되어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차례

감사의 계절.	1쪽 - 2쪽
남가주 연합회 소식	3쪽 - 4쪽
지회 탐방 - 샌프란시스코 지회	5쪽
지회 탐방 - 새크라멘토 지회	6쪽
사라의 웃음 - 임봉대 목사	7쪽
땅끝향기 - 박형경	8쪽
광고	9 쪽-10쪽
- 서부대회 및 리더쉽 스쿨	
- 북가주 연합회 송년모임	
- 우리 지회 월간 스토리	
- 서부총연 조직도	
총회 및 모임 안내	11쪽

남가주 연합회 소식

남가주연합회는 2023년 가을 야유회를 지난 11월11일 11시에 랄프리저널 팍에서 개최했습니다. 최혜나 연합회 부회장 사회로 시작한 1부 예배에서 오현근 부회장 기도에 이어 안신기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봉우 연합회장님의 인사말과 강승태 총회장, 황선철 직전 총회장의 축사도 있었습니다. 맛있고 풍성한 오찬을 나눈 후 오현근, 김리나 회원의 인도에 따라 게임 및 여흥을 즐기며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준비하시고 수고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회(지회장 손대운)는 대면 모임을 17일 금요일 회원 직장 심방을 겸해서 조종애 선교사 회원 사업장에서 가졌습니다. 월요 만나를 묵상하며 나누는 후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날 특별히 처음 참석한 4분의 회원을 환영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조종애 선교사님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북가주 새크라멘토 지회(지회장 최계영)는 지난 18일 송년 모임겸 대면 모임을 가졌습니다. 최계영회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이윤구 회장의 기도와 김소연 부회장, 임종숙회원의 반주로 찬양과 만나 나눔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임했으며 강승태 총회장은 권면의 말씀과 한영인 회원의 첫 참석을 환영했습니다. 이광용 부회장의 식사기도후 맛있는 만찬에 이어 빙고 게임을 즐기면서 풍성한 선물 전달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혜정 총무의 마무리 기도로 모임을 마쳤습니다.



사라의 웃음

임봉대 목사(샌프란시스코 CBMC)

얼굴은 마음의 거울과도 같다. 표정을 좌우하는 것은 눈빛이다. 그렇지만 입가에 머금은 웃음은 알 듯 모를 듯한 신비한 요소가 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두어 시간을 돌았는데도 절반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모나리자만 보고 나가려고 서둘렀던 기억이 있다. 그 신비로운 미소 때문에 모나리자가 눈썹이 없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았다가 정오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송아지를 잡아 극진하게 대접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 천사들이 다시 길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이를 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창 18:10)라고 한 말씀을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듣고 속으로 웃었다. 사라가 웃은 이유는 자기들은 이미 늙었고 경수도 끊어져서 아이를 갖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 것이다(창 18:11-12).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믿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양자를 들이든지 부인의 몸종을 통해 아이를 갖든지 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메섹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이려고 했고, 사라는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도록 하였다. 이것들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지만 자기의 경험과 판단을 넘어설 때는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장막 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의 마음에도 장막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판단이나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는 내 마음의 장막을 벗어버려야 한다.

창세기 21장 1~6절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를 통해 아이를 낳았다. 여기서 ‘말씀대로’를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는데 ‘웃음’이란 뜻이다. 하나님은 사라가 다시 웃게 하셨는데, 불신의 웃음을 기쁨이 가득한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시다.

땅끝향기 고향 같은 곳이 아니라 내 고향이죠 박형경

멈출 것 같지 않던 흔들림이 잠시 소강상태가 되자 나는 미친 듯이 2층의 아이들 방으로 돌진했다. 7살, 9살이던 그 작은 녀석들이 손을 꼭 잡고 작은 책상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말할 필요도 없이 힘껏 뛰어서 대문 밖으로 나갔다. 살아야만 했다.

집 앞 공터로 이웃들이 모여들었다. 흔들림이 계속될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이의 손을 잡아주며 그 시간이 멈추기만 기다렸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정오 녀에 시작된 그 난리 통이 해가 뉘엿뉘엿해질 때까지 이어졌다. 현진이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보냈고,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 하나 둘 세간살이를 챙겨 나오기 시작했다. 장정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긴 대나무와 담요들을 가져와 뚝뚝뚝뚝 그늘막을 만들고 있었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 집 안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애들 손을 붙잡고 집으로 들어갔다. 가슴을 졸이며 급한 불일만보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나왔다. 다행히 난방용으로 가지고 있던 작은 실내 텐트가 하나 있어 부리나케 가지고 나와 공터 한 편에 자리를 잡았다. 온종일 긴장했던 탓에 피곤이 몰려왔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참치 통조림과 끓이지도 않은 라면을 내밀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

네팔에 큰 지진이 올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견은 오래전부터 있던 터라 모두가 조금씩은 불안감을 안고 살았다. 학교에서 매달 정기적 당황하지 않고 배운 그대로 행동했다. 꼬맹이 현진이가 의외로 의연했다. 무서웠을 텐데 괜찮았냐 물었더니, 무섭다고 하니까 오빠가 손을 꼭 잡아 주더라. 눈치도 없이 밤새 비가 내렸고, 텐트 안으로 스며드는 비를 닦아내느라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베개가 젖는 줄도 모르고 곤히 잠든 아이들의 평온한 얼굴이 유일한 위로였다.

이틀 후 지방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남편이 길이 복구되자 가까스로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공터에 난민들처럼 웅기중기 모여 앉아 있는 우릴 보고 남편은 말을 잊지 못했다. 그제야 조이고있던 내 마음의 끈이 느르르 풀어졌다.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영영 울고 싶었다.

며칠이 지나자 여진의 강도도 횡수도 점차 줄어들었다. 우리는 골목을 벗어나 주변을 살필 여유를 찾기 시작했다. 동네 구석구석의 공터란 공터는 모두 피난처가 되어 있었다. 점차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모두 침실 대신 현관 바로 앞에 이불을 깔고 잠을 청했다. 새벽에라도 여진이 오면 손살같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곤히 자던 아이들도 “애들아~”의 애~자가 끝나기도 전에 깨어서 눈도 못뜯채 용수철처럼 튕겨 나갔다. 아이들에게 공포가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아렸다. 그럼에도 도시는 점차 안정을 찾는듯 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일만 남아 있었다.

2주 후 비슷한 강도의 강진이 다시 찾아왔다. 어느 상황에서든 존재하는 예외라는 것이 너무도 잔인하게 그때의 우리를 덮쳤다. 할말을 잃은 도시에는 공포와 탄식만이 존재했다. 미소를 잃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기에 힘에 겨웠다. 생각보다 잘 이겨내는 듯 보였던 아이들은 평온해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꽤 오랫동안 자신도 모르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다. 잊어버릴 만하면 찾아오던 큰아이의 악몽. 갑자기 깨어나 낮을 잃은 모습으로 엄마부터 가족 한명 한명,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생사를 확인한 후에야 쓰러지듯 다시 잠들곤 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연하던지... 깨어나면 기억도 하지 못하던 그 꿈은 그 후로도 꽤 오랫동안 큰아이를 괴롭혔다.

5년이 지난 요즘도 가끔 내 손을 잡고 간절한 눈빛을 보낸다. “엄마가 갑자기 먼저 떠나면 난 어떡하죠?” 그 이후 사람들과 마주하면 왠지 눈물이 났다. 길을 걷다 모르는 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도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고생 많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같은 아픔을 함께 견뎌낸 '우리' 라는 동지애가, 지진 이후 나에게 새롭게 자리한 네팔인들 향한 마음이었다. 금방이라도 문짝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낡은 소형 택시를 타고, 색소를 집어넣은 듯 새까만 매연과 먼지 사이를 뚫고, 악취 나는 쓰레기 더미들을 지나 아수라장 같은 정치 버튼을 눌러버린 줄 알았다.

다급한 현지 사정으로 인해 소속 단체에서는 파송되기 얼마 전 갑작스럽게 파송지를 바꿀 것을 요청했다.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는 마음으로 순종했지만, 네팔이 그리 알려지지 않던 시절, 마음의 준비도 없이 네팔로 향했다. 그 흔한 '신혼 여행기' 도 느끼지 못하고 만삭의 나는 생경하고 불편한 그곳을 견뎌내야 했다. 지구상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뿌리 깊은 힌두 문화와 다들 어지지 않은 그들의 모습에 적응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 마음속에서 그들과 그들의 터전은 새마운 운동을 하듯 갈아엎고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나는 늘 그들의 한 뼨 위에서 있었다.

그런데, 지진 이후 나는 그들을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내 마음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울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만큼은 따뜻함이 넘쳐났다. 기도를 구할 여유도 없이 밀려들어 온 공포속에서 나의 손을 잡아준 이들은 다름 아닌 내 옆의 내 이웃들이었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들이 나에게 친구로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그 이후로 이상하게 그들의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도 많이 불편하지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였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들만의 방법이었다. 그들은 참 따뜻하고 순박한 사람들이었다. 지진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갔지만, 대신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붙잡고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던 성찰의 시기였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미세한 흔들림에도 심장이 떨어지는 듯한 공포가 훅훅 밀려들어 오곤 했지만, 그 외의 일상은 너무도 평온해 졌다. 거리를 두었던 이들에게도 한 발짝 씩 다가가기 시작했고, 불편했던 많은 행동을 미소로 흘려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치앙마이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여러 이유로 네팔을 떠나게 되었지만, 감사하게도 아이들과 나에게 네팔은 힘들었던 곳도 아픈 상처가 있었던 곳도 아니었다. 네팔에 살 때가 가장 행복했다며 떠나기 싫어 눈물을 흘리던 아이들의 마음에 참 아렸지만, 네팔에서의 10년 한국에 가면 사람들은 네팔에서 태어난 딸아이에게 그렇게 힘든 네팔이 뭐가 좋냐고 놀리곤 했었는데, 네팔이 현진이에겐 고향 같은던 말이 있다.

“휴우~, 엄마~! 네팔은, 나에게 고향 같은 곳이 아니라 바로 내~ 내 사랑하는 딸아이의 고향을 언젠간 꼭 다시 찾으리라. 그들의미소가 눈물 나게 그리운 날이다.

 **미주서부 한인 기독교실업인 총연합회 KCBMCUSA**



CBMC
연합회송년모임
DECEMBER 14 AT 5 PM
오가네 연회실 (3915 BROADWAY, OAKLAND)
회비: 일인 \$80
문의: 408.768.3433

- 주최: 북가주 연합회 (회장 계용식)
- 주관: 샌프란시스코 지회 (지회장 손대운)
- 후원: 미주서부총연합회(총회장 강승태)
- 협찬: 트라이밸리 지회 (지회장 박성희), 새크라멘토 지회 (지회장 최계영), 산타클라라 지회 (지회장 실비아리), SFDT지회 (부회장 박래일), TRACY 지회(부회장 허정무)

Connecting Business & Marketplace to Christ

제2회 서부대회 및 리더쉽 스쿨

언제 : 2024년 4월 25일~27일

어디서 : Embassy Suites by Hilton
SF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
Burlingame, CA 94010

주최 :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서부총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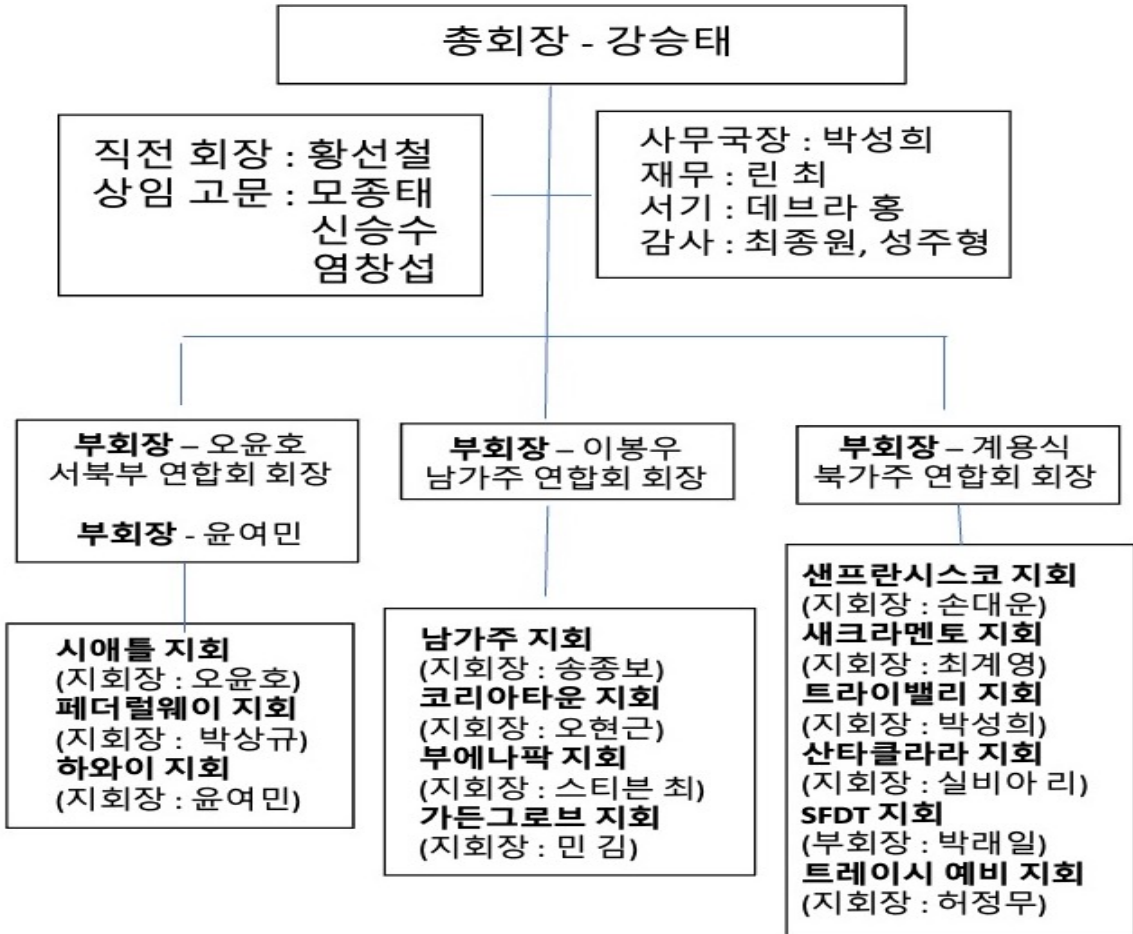
우리지회 월간 스토리

우리 지회 월간 스토리
연합회장님, 지회장님과 총무님!
지난 한 달간 지회모임을 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귀한 사역의 이야기
 - 회원 동정 (사업확장, 개업, 조경사)등
- 귀담아 듣겠습니다. 😊



미주한인기독실업인서부총연합회



CBMC (기독교실업인회) 목적

실업인들과 전문 직업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기독교실업인들과 전문직업인들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는데 있다. (마태복음 28 : 18-20, 사도행전 1 : 8)

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 서부총연합회 (KCBMCUSA)

2023 주제 :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전 11:1)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s

목표 : 성경적 경영과 섬김의 리더쉽 **표어 :** 100개 지회 (재) 창립 역량강화 일터복음사명

CBMC <Connecting Business & Marketing to Christ>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실업인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CBMC는 1930년 미국에서 태동했으며, 기독교실업인 (사업가)과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현재 전 세계 96개국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CBMC는 실업인과 전문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주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국제적 사명공동체입니다.

한국CBMC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국내 273개 지회, 해외 130개 지회가 있으며 7천5백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주지역 한인들의 기독교실업인회는 1975년 남가주에서 출발했습니다. 2019년 1월25일 창립된 미주한인 CBMC 서부총회는 2020년 1월 25일 서부총회 명칭을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 총회 (KCBMCUSA), 2022년 10월 18일 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 서부총연합회 (KCBMCUSA)로 변경했습니다. 총연은 서북부 연합회 (워싱턴, 오레곤, 알래스카주와 밴쿠버, 하와이), 북가주 연합회, 남가주 연합회 3개 연합회의 각 소속 지회로 구성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CBMC 연합회 지회 모임 안내 : COVID-19 사태로 비대면 ZOOM 화상 / 대면 회의 및 기도회

<p>남가주 CBMC 연합회 (연합회장 이봉우)</p> <p>남가주 지회 (회장 : 송종보)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코리아타운 지회 (회장 : 오현근)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후 5:00</p> <p>부에나팍 지회 (회장 : 최순자)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30</p>	<p>가든 그로브 지회 (회장 : 민 김)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후 5:00</p> <p>북가주 CBMC 연합회 (연합회장 계용식)</p> <p>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 손대운) 모임 : 매주 정례 (금) / 줌 *시간 : 오전 7:00</p> <p>새크라멘토 지회 (회장 : 최계영)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전 6:30</p>	<p>트라이밸리 지회 (회장 : 박성희)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산타클라라 지회 (회장 : 실비아 리)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p>SF 다운타운지회 (부회장 : 박래일)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p>트레이시 예비 지회 (회장 : 허정무) 모임 : 주별 비정례</p>	<p>서북부 연합회 (연합회장 오윤호)</p> <p>시애틀 지회 (회장 : 오윤호)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페더럴웨이 지회 (회장 : 박상규) 모임 : 주별 비정례</p> <p>하와이 지회 (회장 : 윤여민)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	---	---	---